

치유농업의 공급조건과 제공프로그램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은주¹, 허철무^{2*}

¹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²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A Study on the Influence of Intention to Use on Supply Condition and Offer Program of Care Farming

Eun-ju Ko¹, Chul-Moo Heo^{2*}

¹Doctoral Student, Dept. of Information Management, Venture, Hoseo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information Management, Venture, Ho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각박한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일반인 중에서 직장인들에 대한 힐링과 치유로써 치유농업의 적용과 성장가능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급조건과 제공프로그램의 구성과 참가자들의 이용의도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모든 하위요인과 이용의도 간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치유농업 공급조건 중 치유시설과 이용편리성,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이용의도가 높았다. 셋째, 치유농업 제공프로그램 중 농작물재배, 동물매개, 자연활동, 문화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이용의도가 높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된 점을 논의하였으며,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방안 모색의 차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치유농업, 공급조건, 제공프로그램, 이용의도, 치유시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measures for the application and growth potential of care farming as a healing for office workers. Therefore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upply conditions and offer programs for the activation of care farming and the intention of participants to use.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for general office workers are as follows. Fris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ll sub-factors and intention to use. Second, the higher the awareness about the convenience of using healing facilities among supply conditions of healing farming and the necessity of medical service, the higher the intention to use. Third, the higher the awareness about the necessity of cultivation of crops, animal mediation, natural activities, and cultural activities among supply conditions of healing farming, the higher the intention to use.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the differences from previous studies and also derived insights for establishing a strategic plan to promote care farming.

Key Words : Care farming, Supply condition, Offer program, Intention to use, Care facilities

*Corresponding Author : Chul-Moo Heo(cmheo@hoseo.edu)

Received June 3, 2020

Accepted July 20, 2020

Revised June 17, 2020

Published July 28, 2020

1. 서론

현대에 들어서면서 고도의 산업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들은 각자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일이나 관계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582.5명이 자살하는 등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자살률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1]. 우리나라 통계청 역시 2018년도 자살률을 보고하면서 전년과 비교하면 4.7%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에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으로 나타난 것은 각종 암, 심장 질환, 폐렴이며 전체 사망자의 45.0%였다. 당뇨 등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하였지만, 알츠하이머나 폐렴 등에 의한 사망률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살이나 질병에 의한 사망은 녹색치유농업을 활용하여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김태곤 외(2014)도 식물에 물주는 소리, 꽃이나 채소 등의 색깔이나 모양, 향기, 농기구나 흙에 대한 접촉등이 뇌를 자극해 의식을 각성하고 주의력과 기억력을 향상 시키며 이런 활동을 반복하고 함께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되고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다고 했다[3].

따라서 치유농업(Care farm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치유농업은 ‘녹색치유농업(Green care farming)’,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등으로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3].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용어를 ‘치유농업’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치유농업은 국외의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었으며, 국내의 사례와 함께 조사해 본 결과 아동, 청소년, 성인을 비롯하여 치유농업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지역사회와 국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4].

특히 국내에서도 농촌을 이용한 치유자원에 대해서 농촌진흥원(2019)은 환경자원, 자연자원, 경관자원, 시설자원, 역사자원, 공동체 활동자원, 경제활동자원, 기타자원 등의 8개 유형과 더욱 세분화된 28개 항목을 제시하면서 농업치유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5], 박수영(2016), 김아라(2016), 서정남 외(2017) 등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국내 사례분석과 치유농업에 대한 고객 분석을 통해 국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조사 및 정부의 정책적 대안마련의 방안이 모색되고 있었다[6-8].

그리고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김옥자

(2018), 강신겸(2013), Sempik(2010), 고봉국·이제훈(2013) 등은 어떠한 요인이 공급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다[9-12].

이러한 선행연구의 조사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국내에서 치유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급조건과 제공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치유농업 참가자들의 이용의도가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치유농업의 참가자들에 대한 이용의도를 높일 수 있는 원인을 공급조건과 제공프로그램에서 찾는다는 데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분석을 통해 각박한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일반인 중에서도 직장인들에 대한 힐링과 치유로써 치유농업의 적용과 성장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방안모색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치유농업

치유농업(Care farming)은 ‘녹색치유농업(Green care farming)’,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며[3],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하며 연구하고 있다. 따라서 치유농업의 정의와 효과 그리고 사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2.1.1 치유농업의 정의와 효과

치유농업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바, 이에 대해 대표적인 연구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Sempik, Hine & Wilcox(2010)은 치유농업은 ‘업무와 관련하여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학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정신질환자(Mental illness), 우울(Depression), 약물중독자 학습장애(Drug addicts learning disability), 사회적으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활동이고, 다기능적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과 지역사회 기반건강치유(Community-based health care)의 2가지 개념에 기반하고 있으며, 식물에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농업자원(Agricultural resources)을 활용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고, 사회적 복귀(Rehabilitation), 치료(Therapy), 보호 작업(Sheltered work),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등 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13], 김경미 외(2013)는 '농촌자원(식물, 동물, 농작업, 문화와 환경, 음식) 또는 이와 관련된 활동과 산출물들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및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14]. 그리고 김태곤 외(2014)는 '본질적으로는 치유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활동을 활용한다는 의미'로 치유농업을 정의하고 있다[3].

이러한 치유농업은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는 바, 대표적인 예로 원예치료는 식물을 시각적·미각적인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활동에 육체적인 재활과 더불어 정신적 피로의 회복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고[3], 동물치유는 동물과의 접촉을 통하여 동물과 나누는 교감을 토대로 하는 매개치료와 승마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치유승마 등의 동물과 함께 활동하며 육체적 정신적 치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15]. 그리고 일반적인 효과는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박유정(2020)은 국내외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안정감과 자아존중감, 책임감, 심리적 안정감, 신체능력, 친사회적 행동 등의 향상과 함께 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있다고 하였고, 성인에게 있어서도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자아정체감과 안정감, 대인관계, 부부관계, 부모 효능감 등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치유농장과 같은 기관이나 단체에는 고부가가치를 생산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시장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고용을 확대하며, 보건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에 대해서는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고용을 확대하며, 녹색산업을 성장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3].

2.1.2 치유농업의 사례와 선행연구

치유농업은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 연구되어지고 있는 바, 국내의 사례를 연구한 박수영(2016)은 그린케어농업 지원센터 등 정부 주도적인 추진의 필요성과 육성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의 발굴과 확보, 관련 지원 법·제도의 정비를 강조하였고[6], 김아라(2016)는 겸업형, 전업형, 기관주도형으로 유형을 나누어 유형별 운영특성을 분석하였으며[7], 서정남 외(2017)는 고객의 필요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치유농장을 탐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

해외사례를 통해 치유농업을 살펴본 연구에서 네덜란드의 사례를 파악한 Hassink, et al.(2007)은 치유농업

에 대한 높은 전문성(Professionalization)과 사회적 욕구(Needs of Society)를 바탕으로 적합한 농업 환경시스템을 확립하고 있다고 하였으며[16], 이윤정(2016)은 네덜란드의 농장과 대상자, 주요 활동, 치유농업 관련 조직 및 정책 등을 조사하였으며, 우리나라 치유농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17].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조사한 박화춘·강대구(2017)는 미국에서의 녹색치유농업은 지역공동체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지역 공동체에서 만든 정원을 병원과 연계하여 활용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주나 시에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고 하였으며[18], 일본의 경우, 교육농장은 농립수산성의 주관 하에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교육농장에서는 학생들이 농업을 체험해봄으로써 자연의 힘과 생산자의 지혜와 노력을 배우고, 먹거리의 소중함을 알게한다고 하였다[19]. 그리고 벨기에의 경우 농립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치유농업 지원센터, 지역별로 지원기관 등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다[3].

2.2 치유농업 공급조건과 제공프로그램

치유농업의 공급조건과 제공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보고되고 있는 바, 이는 치유농업이 추구하는 목적과도 관련이 깊다. 따라서 치유농업의 목적 및 공급조건과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2.2.1 치유농업의 목적

치유농업은 치유서비스(Care service)를 제공하는 것이며[20], 이러한 관점에서 김경미 외(2013)는 치유농업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치유'로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는 '교육'으로서 정규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행동문제 학생과 학습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이다. 셋째는 '사회적 재활'로서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14]. 그리고 이윤정(2016)은 서비스 이외에도 고용과 교육까지의 연장선상에서 치유농업의 목적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바, 첫째, 치유 중심의 치유농업의 경우, 치유가 요구되는 사람들에게 치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치유농업(Care farms)이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문적인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며, 노동시장과의 연

계, 또는 고용의 목적은 없다. 둘째, 고용을 중심으로 한 치유농업은 노동시장과 고용을 연계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약자를 위한 전문적 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고용 중심 치유농업은 치유 서비스에 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의 건강시스템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다. 경제적 지원은 사회 및 노동과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농장에서의 농업생산이 운영 수입이다. 셋째, 교육을 중심으로 한 치유농업은 정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촌 경관 및 농업활동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사회적 조치, 교육농장과 학습장애 등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농장 등의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17].

2.2.2 치유농업의 공급조건과 프로그램

치유농업은 접근성, 경제성, 안전성, 전문성 차원에서 공급조건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소비자의 주 생활거주지에서 이용하기 편리하고 접근하기 용이해야 하고(접근성), 둘째,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유농업 시설 이용 및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경제성), 셋째, 치유농업 시설 이용에 있어 보안, 긴급 호출·의료 서비스, 방범·방재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야 하고(안전성), 넷째, 치유농업 시설에서 치유농업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치유를 위한 서비스 및 치유농업 인적 자원의 전문적 지식·기술·능력이 보유되어야 한다(전문성)[9].

이러한 공급조건 하에서 농작물 재배, 동물매개, 치유 시설 등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서비스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녹색치유농업 프로그램은 농작물을 어떻게 심고 자라는 과정이나 재배하고 수확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자신들이 먹는 농산물이 들어간 신선한 재료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자신들의 집 식탁에 오를 수 있는지 알아가는 과정이며 농산물의 특징이나 효능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10]. 이에 Sempik(2010)은 치유농업의 개념인 녹색치유를 사회치료적 원예, 동물매개 개입, 치유농업, 치료목적의 녹색운동, 생태치료, 야생치료 등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첫째, 사회치료적 원예는 원예를 생활에서 충분한 기쁨과 만족감 증진에 활용하며 사회적 교류와 상호작용이 치료 활동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둘째, 동물매개 개입은 치료 프로그램에서 동물을 적극 활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셋째, 농업 치유는 농업 활동에 참여하여 농작물을 심고 재배하면서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치유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넷째, 치료목적의 녹색운동은 인간이 자연에서의 상태로 신체적인 활동을 말하며, 일반적인 야외활동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생태치료는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조성하거나 보존하며 스스로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자연상태 그대로 노출되어 활동하는 것이다. 다섯째, 야생치료는 인적이 드문 곳과 특별한 야외공간에서 경험의 통하여 일부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다[21].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치유농업의 공급조건을 치유시설과 자연경관 및 이용편리성과 의료서비스 등으로 정의하며, 제공프로그램을 농작물재배나 동물매개, 자연활동, 문화 활동 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3 이용의도

이용의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Davis(1989)는 '행위의도를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려는 의도의 강도'라고 하였고[22], 이용의도를 충성도로 보고 주로 행동론적 충성도 관점에서 연구한 Dekimpe et al.,(1997)는 소비자 행동의 결과에만 중점을 두고 이용의도를 정의하고자 하였다[23]. 그리고 이유재·라선아(2002)는 태도론적 관점에서의 충성도 개념 즉 인지적, 감정적, 그리고 의도적 요소를 제시하였으며 [24], 이 중에서 의도적 요소를 미래에 해당하는 '제품/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의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임진숙(2008)은 마케팅에서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장기적 이용의도를 충성도 측면으로 간주하고 이용의도에서 더 나아가 재이용의도를 정의하였는 바, 재이용의도를 고객과의 관계마케팅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척도로 사용하였고 [25], 이성호(2006)는 이용의도로부터 '지속적 사용의도'의 개념을 도출하여 '사용 중단의도와 더불어 정보시스템에 있어서의 수용 후 행동에 대한 결과로서의 의미'로 정의하였다[26].

이러한 이용의도의 정의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치유농업(Care farming)시설의 필요성과 자신 및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용하며, 향후에도 이용할 의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연구결과

3.1 연구결과와 연구가설

치유농업에 대한 문헌고찰과 선행연구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치유농업의 공급조건과 제공프로그램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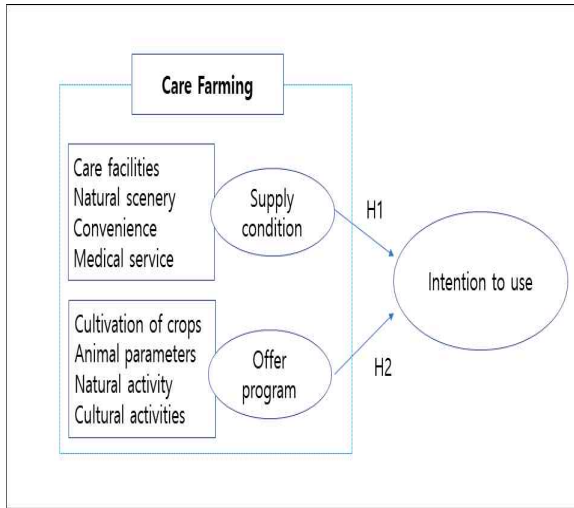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설정된 연구모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 H1. 치유농업의 공급조건에 대한 직장인의 인식은 치유농업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직장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치유농업의 제공프로그램들은 치유농업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치유농업 공급조건과 제공프로그램 및 이용의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치유농업 공급조건은 독립변수로서 ‘직장인들이 인식하는 치유농업을 위한 치유시설과 자연경관 및 이용편리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급조건’으로 정의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옥자(2018), 박정아(2016), 김철문(2014)의 연구를 수정보완 한 치유시설 4문항, 자연경관 4문항, 이용편리성 5문항, 의료서비스 5문항 등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치유농업 제공프로그램 역시 독립변수로서 ‘직장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치유농업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종류’로 정의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옥자(2018), 박소리(2015)의 연구를 수정보완 한 농작물 재배 4문항, 동물매개 4문항, 자연활동 4문항, 문화활동 4문항 등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이용의도는 종속변수로서 ‘직장인들이 치유농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하며, 김옥자(2018)의 연구에서 사용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결혼상태, 거주기,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 종교, 거주형태, 가족형태, 건강상태, 치유농업의 주체에 대한 인식 등 12문항을 사용하였다.

3.3 자료수집과 분석절차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1개월 간 서울시, 경기도 및 전라도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유효하게 수집된 440명을 대상으로 SPSS 20.0통계패키지 프로그램에 코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측정도구 구성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시행한 후, 내적합치도에 의한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도출하였다. 셋째,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문항으로 평균화에 의한 변수계산을 실시한 후 주요변수간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현황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의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1. Personal background

Categories		F	P
Gender	Man	188	42.7
	Woman	252	57.3

Age	20 to 30 Years old	22	5.0
	30 to 40 Years old	30	6.8
	40 to 50 Years old	174	39.5
	50 to 60 Years old	206	46.8
	60 Years old or older	8	1.8
Married	Single	54	12.3
	Married	356	80.9
	Others (such as bereavement)	30	6.8
Residence	Seoul	184	41.8
	Gyeonggi-do	134	30.5
	Gangwon-do	6	1.4
	Chungcheong-do	12	2.7
	Gyeongsang-do	8	1.8
	Jeolla-do	80	18.2
	Jeju-do	10	2.3
	Sejong city	6	1.4
Education	Junior high school Graduate or younger	8	1.8
	High school graduation	134	30.5
	College graduate	88	20.0
	University graduation	146	33.2
	Graduate graduation	64	14.5
Job	Production	22	5.0
	Service Jobs	92	20.9
	Office Work	128	29.1
	Housewife / Unemployed	50	11.4
	Public offices and Public institutions	72	16.4
	Other	76	17.3
Monthly average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40	9.1
	2 Million to less than 4 million won	118	26.8
	4 Million to less than 6 million won	112	25.5
	6 Million to less than 8 million won	52	11.8
	8 Million to less than 10 million won	48	10.9
	10 Million won or more	70	15.9
Religion	Have	182	41.4
	None	258	58.6
Residence form	Self	338	76.8
	Taga (rental, etc.)	102	23.2
Family form	Live alone	32	7.3
	Only couples live	44	10.0
	Live with children	274	62.3
	Live with parents	32	7.3
	Live with parents and children	58	13.2
Health condition	Have bad health	20	4.5
	Health is normal	254	57.7
	Good health	150	34.1
	Health is very good	16	3.6

Care farming management / implementati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26	28.6
	Municipality	162	36.8
	Civic groups	24	5.5
	Private business	20	4.5
	Private enterprise	34	7.7
	Government investment agency	68	15.5
	Religious groups	6	1.4
	Sum	440	100.0

전체 440명(100.0%) 중에서 여자가 252명(57.3%), 50세~60세 미만이 206명(46.8%), 기혼이 356명(80.9%), 서울특별시가 184명(41.8%), 대학교 졸업이 146명(33.2%), 사무직이 128명(29.1%)으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400만원미만이 118명(26.8%), 종교는 없는 경우가 258명(58.6%), 거주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338명(76.8%), 가족형태는 자녀와 살고 있는 경우가 274명(62.3%), 건강상태는 보통인 경우가 254명(57.7%)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치유농업(케어팜)의 운영과 시행주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162명(36.8%), 농촌진흥청이 126명(28.6%)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4.2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타당성이 확보된 문항에 대해서 하위요인별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Varimax직각회전을 실시하였고,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Kaiser-Meyer-Olkin)측도값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유값(Eigen value)의 기준은 1로 설정하였으며, 요인적재량값은 최소 0.5이상인 경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신뢰도는 내적합치도에 의한 Cronbach's α 값을 도출하였으며, 0.6이상인 경우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2.1 치유농업 공급조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치유농업 공급조건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2. Supply conditions for Care farming

Categories	Ingredient			
	Medical sarvice	Convenience	Natural scenery	Care facilities
Care facilities 1	.116	.317	.222	.568

Care facilities 2	.256	-.066	.131	.768
Care facilities 3	.011	.160	.216	.776
Care facilities 4	.240	.122	.245	.602
Natural scenery 1	.310	.188	.628	.128
Natural scenery 2	-.011	.036	.678	.215
Natural scenery 3	.156	.127	.823	.185
Natural scenery 4	.147	.242	.724	.321
Convenience 1	.211	.520	.323	-.187
Convenience 2	.193	.688	.274	.194
Convenience 3	.460	.534	.082	.022
Convenience 4	.182	.826	.058	.222
Convenience 5	.207	.798	.080	.182
Medical service 1	.806	.222	.084	.125
Medical service 2	.783	.202	.144	.136
Medical service 3	.534	.232	.406	.136
Medical service 4	.605	.272	.231	.294
Medical service 5	.816	.129	.059	.124
Eigen value	3.227	2.839	2.674	2.385
% Dispersion	17.929	15.773	14.855	13.248
% Accumulate	17.929	33.703	48.558	61.807
Cronbach's α	0.847	0.791	0.781	0.745
0.894				

분석결과 KMO는 .87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χ^2 값은 3640.522($p=.000$)으로 나타나 모형은 적합하였으며, 누적분산은 61.807%였다. 고유값 1이상인 성분은 4개가 도출되었으며, 요인적재량 0.5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성분 1부터 4번까지는 각각 의료서비스, 이용편리성, 자연경관, 치유시설 요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요인을 구성하는 모든 문항은 타당하였다.

타당성이 확인된 문항으로 Cronbach's α값을 도출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0.6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4.2.2 치유농업 제공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치유농업 제공프로그램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3. Supply programs for Care farming

Categories	Ingredient			
	Animal parameters	Natural activity	Cultural activities	Cultivation of crops
Cultivation of crops 1	.229	.128	.213	.747
ultivation of crops 2	.177	.154	.095	.828
ultivation of crops 3	.046	.209	.087	.747
ultivation of crops 4	.264	.197	.107	.666
Animal parameters 1	.822	.104	.179	.256

Animal parameters 2	.833	.134	.212	.285
Animal parameters 3	.875	.183	.158	.156
Animal parameters 4	.774	.119	.235	.088
Natural activity 1	.134	.718	.027	.351
Natural activity 2	.068	.866	.127	.147
Natural activity 3	.104	.889	.148	.181
Natural activity 4	.262	.718	.272	.099
Cultural activities 1	.330	.168	.704	-.084
Cultural activities 2	.073	.153	.875	.184
Cultural activities 3	.268	.098	.847	.144
Cultural activities 4	.173	.150	.715	.359
Eigen value	3.209	2.855	2.833	2.803
% Dispersion	20.055	17.842	17.709	17.516
% Accumulate	20.055	37.897	55.606	73.123
Cronbach's α	0.902	0.862	0.861	0.818
0.904				

분석결과 KMO는 .87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χ^2 값은 4420.938($p=.000$)으로 나타나 모형은 적합하였으며, 누적분산은 73.123%였다. 고유값 1이상인 성분은 4개가 도출되었으며, 요인적재량 0.5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성분 1부터 4번까지는 각각 동물매개, 자연활동, 문화활동, 농작물재배 요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요인을 구성하는 모든 문항은 타당하였다.

타당성이 확인된 문항으로 Cronbach's α값을 도출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0.6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4.2.3 이용의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용의도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4. Intention to use

Categories	Ingredient
	Intention to use
Intention to use 1	.780
Intention to use 2	.919
Intention to use 3	.905
Intention to use 4	.865
Intention to use 5	.895
Eigen value	3.820
% Dispersion	76.395
% Accumulate	76.395
Cronbach's α	0.922

분석결과 KMO는 .85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χ^2

값은 1727.435(p=.000)으로 나타나 모형은 적합하였으며, 누적분산은 76.395%였다. 고유값 1이상인 성분은 1개가 도출되었으며, 요인적재량 0.5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해당 성분은 이용의도 요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구성하는 모든 문항은 타당하였다.

타당성이 확인된 문항으로 Cronbach's α 값을 도출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0.6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4.3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현황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과정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문항으로 평균화에 의한 변수계산을 실시하였다. 변수계산에 의해 생성된 주요변수에 대하여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 & Descriptive statistics

Categories	1	2	3	4	5	6	7	8	9
Care facilities	1								
Natural scenery	.538**	1							
Convenience	.391**	.448**	1						
Medical service	.454**	.461**	.587**	1					
Cultivation of crops	.426**	.385**	.366**	.418**	1				
Animal parameters	.410**	.300**	.318**	.417**	.471**	1			
Natural activity	.265**	.432**	.353**	.414**	.473**	.394**	1		
Cultural activities	.307**	.227**	.300**	.469**	.399**	.507**	.405**	1	
Intention to use	.382**	.270**	.345**	.376**	.477**	.459**	.410**	.522**	1
MIN	1.00	2.00	2.60	2.20	2.25	1.00	2.75	1.75	2.20
MAX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M	3.857	4.174	4.102	4.101	4.052	3.600	4.325	3.769	3.915
SD	0.590	0.558	0.536	0.591	0.535	0.746	0.542	0.713	0.633
Skewness	-.477	-.443	-.245	-.123	-.030	-.368	-.183	-.128	-.238
Kurtosis	1.973	.623	.159	-.181	.013	.584	-.743	-.274	-.430

*p<.05 **p<.01

치유농업 공급조건과 치유농업 제공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하위요인과 이용의도 간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1점에서 5점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 않다. 가장

높은 평균은 치유농업 제공프로그램 도구의 자연활동 요인으로 4.325점이며, 가장 낮은 평균은 동물매개 요인으로 3.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왜도와 첨도는 모두 절대값 2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을 확보하였다.

4.4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은 크기 치유농업 공급조건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H1)과 치유농업 제공프로그램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H2)로 구분되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4.4.1 치유농업 공급조건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H1)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 H1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6. H1 Analysis result

Categories	B	s.e	β	t
ingredient	1.437	.251		5.738***
care facilities	.267	.057	.249	4.721***
Natural scenery	-.016	.061	-.014	-0.258
Convenience	.173	.064	.146	2.688**
Medical service	.196	.060	.183	3.281**
Model	R ² =.211, adj.R ² =.204, D/W=1.690, F=29.056***			

*p<.05 **p<.01 ***p<.001

공선성 통계량 분석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1 이상이며, 분산팽창지수(VIF)는 10미만으로 나타나 독립 변수 간 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R²값이 .211로서 모형을 21.1% 설명하고 있으며, Durbin-Watson 값은 1.690으로서 잔차의 독립성은 확보되었고, 분산의 F값은 29.056(p<.001)로서 유의하였다.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치유농업 공급조건으로는 치유시설의 β 값이 .249(p=.000), 이용편리성의 β 값이 .146(p=.007), 의료서비스의 β 값이 .183(p=.001)로서 정(+)의 방향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치유농업 공급조건 중 치유시설과 이용편리성,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이용의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향력 크기의 순서는 치유시설 > 의료서비스 > 이용편리성의 순이었다. 그러나 자연경관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2 치유농업 제공프로그램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H2)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 H2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Table 7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7. H2 Analysis result

Categories	B	s.e	β	t
ingredient	.740	.219		3.385**
Cultivation of crops	.270	.054	.229	4.975***
Animal parameters	.126	.040	.149	3.182**
Natural activity	.138	.052	.119	2.659**
Cultural activities	.272	.040	.307	6.744***
Model	R ² =.386, adj.R ² =.380, D/W=1.726, F=68.376***			

*p<.05 **p<.01 ***p<.001

공선성 통계량 분석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1 이상이며, 분산팽창지수(VIF)는 10미만으로 나타나 독립 변수 간 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R²값이 .386로서 모형을 38.6% 설명하고 있으며, Durbin-Watson 값은 1.726으로서 잔차의 독립성은 확보되었고, 분산의 F값은 68.376(p<.001)로서 유의하였다.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치유농업 공급조건으로는 농작물재배의 β 값이 .229(p=.000), 동물매개의 β 값이 .149(p=.002), 자연활동의 β 값이 .119(p=.008), 문화활동의 β 값이 .307(p=.000)으로서 정(+)의 방향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치유농업 제공프로그램 중 농작물재배, 동물매개, 자연활동, 문화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이용의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향력 크기의 순서는 문화활동 > 농작물재배 > 동물매개 > 자연활동의 순이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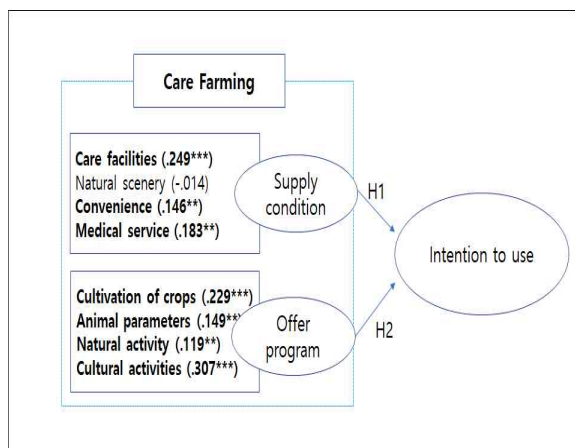


Fig. 2. Results of the analysis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치유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급조건과 제공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치유농업 참가자들의 이용의도가 높아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선행연구 조사에 기반한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제작한 후 서울시, 경기도 및 전라도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로 통계적인 분석을 시행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치유농업 공급조건과 치유농업 제공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하위요인과 이용의도 간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치유농업 제공프로그램 도구의 자연활동 요인이 가장 높은 평균을 가졌고, 동물매개 요인이 가장 낮은 평균을 보여주었다.

둘째, 치유농업 공급조건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하위요인 중 치유시설과 이용편리성,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이용의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향력 크기의 순서는 치유시설 > 의료서비스 > 이용편리성의 순이었다. 그러나 자연경관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치유농업 제공프로그램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하위요인 중 농작물재배, 동물매개, 자연활동, 문화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이용의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향력 크기의 순서는 문화활동 > 농작물재배 > 동물매개 > 자연활동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농촌을 이용한 치유자원의 유형과 항목을 분류하여 농업치유의 활성화를 꾀하는 농촌진흥원(2019)의 연구와 국내 사례 및 고객분석을 통해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박수영(2016), 김아라(2016), 서정남 외(2017) 등의 연구 등과 연구의 목적에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치유농업을 이용하는 사람의 의도를 제고하기 위한 치유농업의 공급조건과 제공프로그램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가 있으며,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치유농업을 이용하는 사람의 이용의도를 높이기 위한 공급조건으로는 치유시설과 의료서비스에 특히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심리상담실과 집단활동 및 농작물을 이용한 조리시설 그리고 숙식시설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야 하고, 치유농업시설을 찾는 이용

자들의 대부분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인력의 제공되어야 하며, 건강관련 정보를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연경관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자연경관은 이용의도와 의 이변량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으므로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은 아니다. 그러나 치유시설과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 일정 정도의 공선성 문제에 의해서 다중회귀분석에서 영향력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즉, 자연경관 보다는 치유시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치유농업 이용자의 이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프로그램 중 문화활동과 농작물재배의 요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치유농업을 이용하는 도중에 민속놀이나 자연염색 또는 음식을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이 부가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치유농장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이를 요리할 수 있는 형태의 체험적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 및 전라도를 중심으로 이용자를 조사하였다는 점과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 [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Suicide prevention (SUPRE)*. Geneva : WHO.
- [2]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8). *Causes of Death Statistics in 2018*. Daejeon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3] T. G. Kim, J. N. Heo & J. H. Jeon. (2014). *Expansion of healing function of urban agriculture and ways for urban and rural cooperation*. Naju-shi :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L).
- [4] Y. J. Park. (2020). *The Reasearch on Green Healing Agriculture Impact on Life Satisfaction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Doctoral dissertation.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Gyeonggi-do.
- [5] Rural healing. (2019). *Jeonju-shi* : Kore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6] S. Y. Park. (2016). *Basic Scheme for Systematic Introduction of Green Care in Agriculture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7] A. R. Kim. (2016). *In-depth analysis of domestic green care agriculture operation*.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Gwangju.
- [8] J. N. Seo, K. J. Kim & M. I. Jeong. (2017). *Seeking ways to revitalize healing agriculture to create new values for healing agriculture*. Jeonju-shi : Kore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9] O. J. Kim. (2018). *A Study on the Factors of Consumers' Intention of Using Care Farms: Focused on the Control Variables of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Seoul.
- [10] S. K. Kang. (2013, October). Rural Tourism Status and Challenge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384, 36-42.
- [11] Sempik, J. (2010). Green Care and mental health:gardening and farming as health and social care. *Mental health and social inclusion*, 14(3), 15-22. DOI : 10.5042/mhsi.2010.0440
- [12] B. K. Ko & J. H. Lee. (2013).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oor space of a healing facility. *Proceeding of Spring Annual Conference of KHA*. (pp. 139-143). Seoul : Korea Housing Association.
- [13] Sempik, J, Hine, R & Wilcox, D. (2010). *Green Care: A Conceptual Framework: a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Health Benefits of Green Care*. Loughborough University.
- [14] G. M. Kim, J. H. Moon, S. J. Jeong & S. M. Lee. (2013). *Analysis on the Pres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Agro-healing in Korea*.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20(4), 909-936. DOI : 10.12653/jecd.2013.20.4.0909
- [15] O. J. Kim. (2016). Literature review on the healing programs with farm animals in care farming. *Journal of Animal Assisted Psychotherapy*, 5(1), 1-13. DOI : 10.16896/kaap.2016.5.1
- [16] Hassink, J. & Van Dijk, M. (2006). Farming for Health: Green-Care Farming Across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oceedings of the Frontis Workshop on Farming for Health*. (pp. 16-19). Dordrecht, The Netherlands: Springer.
- [17] Y. J. Lee. (2016 October). Dutch social farming: focused on the Care Farming. *World Agriculture*, 195, 31-47.
- [18] H. C. Park & D. G. Kang. (2017). Suggestions for Applications of Therapeutic Farms for Promoting School Community Engagement in Korea based on Review of Therapeutic Farms, Gardens, Animals, Policies, and Laws in the U.S.A.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27(2), 215-269. DOI : 10.31894/jrs.2017.12.27.2.215

- [19] Kore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6). *Dutch Healing Agriculture-Healing Agriculture Understanding Series 01. Jeonju-shi* : Kore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20] Di Iacovok F. & O'Connor, D. (2009).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insaive rural areas*. Firenze, Italia: ARSIA.
- [21] Sempik, J. (2010). *Green care and mental health: gardening and farming as health and social care. Mental Health and Social Inclusion, 14(3)*, 15-22. DOI : 10.5042/mhsi.2010.0440
- [22] Davis, F. D. (1989).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13(3)*, 319-340. DOI : 10.2307/249008
- [23] Dekimpe, M. G, Steenkamp, J. B. E, Mellens, M & Abeele, P. V. (1997). *Decline and variability in brand loyalty.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14(5)*, 405-420. DOI : 10.1016/s0167-8116(97)00020-7
- [24] Y. J. Yi & S. A. La. (2002). *The relationship of customer satisfaction, adjusted expecta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the moderating role of customer loyalty.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3(3)*, 51-78. <http://www.kscs.or.kr/journal/search?jidx=100>
- [25] J. S. IM. (2008).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Influence of Service User on motives, commitment and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Dong Yang University, Gyeonggi-do.
- [26] S. H. Lee. (2006). *The effects of ubiquitous attributes of mobile contents on perceived interactivity and behavioral outcome*.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허철무(Chul-Moo Heo)

[정회원]



- 1989년 2월 : 숭실대학교 화학공학과 (공학사)
- 2008년 2월 : 중앙대학교 유통산업과 (유통학석사)
- 2014년 2월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

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벤처농업, 벤처창업
· E-Mail : cmheo@hoseo.edu

고은주(Eun-Ju Ko)

[정회원]



- 2006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사)
- 2008년 2월 : 목포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2019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 1995년 10월 ~ 현재 : 농협은행 차장

· 관심분야 : 벤처농업, 벤처경영
· E-Mail : ej4455@nonghyup.com